

家政學의 方向*

The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科

教授 姜 蕙 蓮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Hewon Kahng

<目 次>

- | | |
|--------------------|---------------|
| I. 서 론 | 1. 가정학의 전문화 |
| II. 가정학의 방향 | 2. 전문적 직업교육 |
| 1. 가정학의 새로운 방향 II. | 3. 교수진 및 연구활동 |
| 2. 인간행태학 | 4. 성역할의 한계 |
| 3. 가정학의 새로운 정의 | 5. 명칭의 변경 |
| 4. 가정학 교육대상 확장 | IV. 결 어 |
| III. 가정학의 문제점 | |

<Abstract>

This paper is a review of articles selected from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3~1979) with the purpose of studying new direction of home economics in America. Regarding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the following points were important:

- 1) Top priorities for future directions in home economics were developed at the 11th Lake Placid Conference and published in "Home Economics New Directions II" (May 1975).
- 2) A new definition of home economics by University of Arizona students described the uniqueness of home economics clearly, and in easily understandable terms.
- 3) A human ecosystem model which depicts human beings existing in interaction with the total environment was found to be a new approach to the concept of home economics.
- 4) A proposal was made for offering home economics courses to students in professional human service fields.

Some of the problems of home economics which need to be solved:

- 1) The emphasis on specialization in a major field has made home economics just a collection of specialties.
- 2) The change of the designation "home economics" to other labels by some institutions has brought confusion.
- 3) Inadequate supply of competent faculty is the cause of inactive home economics research.
- 4) Teaching sex defined roles is outdated.

The above findings give insights to Korean home economics which is faced with a variety of problems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 본 논문은 1980년 2월 19일 제 4차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교수세미나에서 "가정학의 교육이념과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라는 주제하에서 발표된 일련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임.

I. 서론

우리나라에 대학교육 향상을 위한 계열별 모집이 시행된 이래, 학문의 동계분야의 통합 또는 새로운 분야의 재편성들이 기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에서의 가정학의 존재가치를 의심하는 말, 즉 가정학이란 좋은 가정을 꾸미기 위한 교양 과정, 또는 기술 전달의 매개체의 집합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의 문이 넓어짐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대학의 입학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가정학이 과연 독립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가정학의 방향 및 문제점들을 살피기 위하여 과거 7년간(1973~1979)의 *Journal of Home Economics*(미국 가정학회지)를 분석하였다.

II. 가정학의 방향

변화하는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며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학문분야로서의 위치를 굳게할 필요성에서 가정학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73년 Atlantic City 연회에서 가정학의 미래에 관한 Delphi Study¹⁾가 진행되어 새로운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결과를 기초로 1973년 10월 제11차 Lake Placid Conference²⁾에서 새방향 설정을 위한 6측면의 분과토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여러차례의 방향설정 방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1975년 5월호에 “가정학의 새로운 방향 II”³⁾라는 주제하에 결실을 보았으며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1959년에 제 I 차의 새 방향이 설정된 바 있음).

1. 가정학의 새로운 방향 II

첫째로, 가정학의 창립자가 내린 가정학의 정의 즉 “가정학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측면으로는 인간의 물리적 환경과 다른 측면으로는 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의 천성에 관한 이상, 원리, 조건, 법칙의 학문이며, 또한 이 학문은 특히 이

러한 두 요인들의 관계의 학문이다.”라는 기초적 사명은 오늘날도 같다.

둘째로, 가정학의 본질에 대하여 그 초점은 가정(family)의 여러 형태이며, 가정은 개인을 위한 회복, 보호, 양육의 주된 근원이며, 가정을 통하여 사람과 그들의 환경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갖도록 한다. 또한 가정학은 미래를 구체화하고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쉽게 도우며, 가정학의 핵심은 family ecosystem이다.

셋째로, 가정학을 위한 보다 새롭고 중요한 것으로서 5가지 방향 즉 (1) 미래적 사고방식 및 계획 (2) 공공정책 수립참여 (3) 불확실 및 변화에 대한 창의적 적응 (4) 자원의 재분배 및 (5)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상호연관성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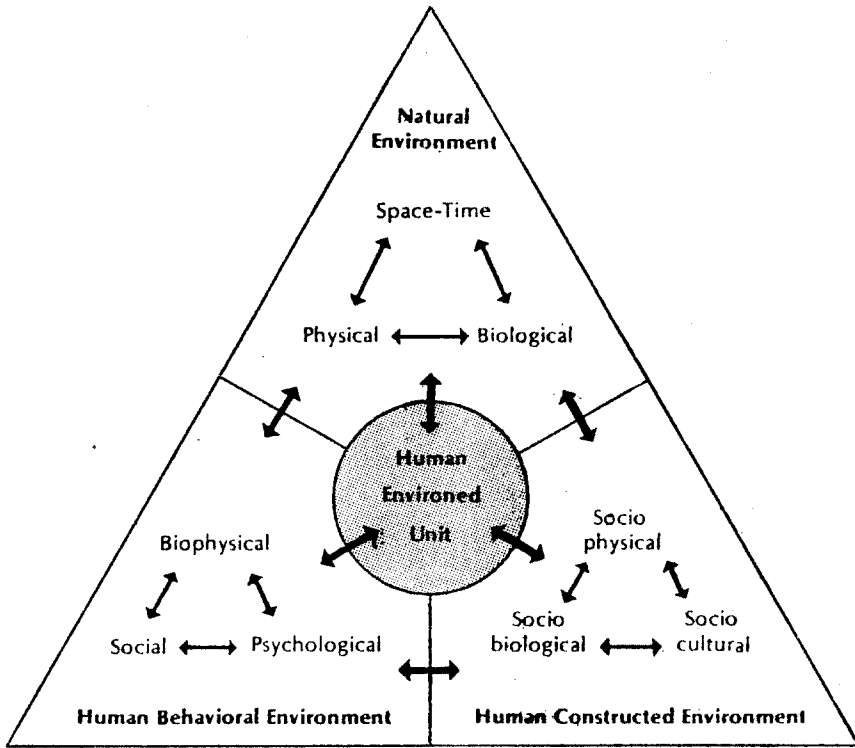
이러한 제안은 이론 및 연구를 전제로 하며 이에 요망되는 태도는 (1) 자발적인 기준지표 목적에 비춘 자신의 현재일의 평가, (2)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전문적 가치해명 및 (3) 자발적으로 목표에 맞춘 프로그램 작성 및 부적당한 것들의 과감한 제거 및 변경 등이다.

2. 인간행태학

가정학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채택된 인간행태학에 관하여 Bubolz, Eicher 및 Sontag가 발표한 “The Human Ecosystem: A Model”⁴⁾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 동물이다. 인간 상호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생물체 및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도 상호 의존적이다. 인간행태학(human ecology)은 개인 및 집단을 물리적, 생물적 사회적 조건 및 그들을 둘러싼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보는 관점이 기초를 이루며, 이미 심리학, 사회학, 지리학, 보건학 및 가정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행태학적 모형은 유기체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일반적인 행태학적 모형을 따르는 것이며, 유기체, 그의 환경, 그리고 그들의 상호 작용을 ecosystem이라고 한다. 이 모형은 유기체의 공간적 차원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및 인간의 적응에 영향을 미



〈Fig. 1〉 The Human Ecosystem.

(자료 : Bulolz, Eicher, and Sontag, p. 29)

치는 가치관 및 문화를 고려하였고, 또한 그들의 환경의 수정 및 이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중의 하나는 〈Fig. 1〉과 같다.

3. 가정학의 새로운 정의

Arizona 대학의 학생들에 의하여 가정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⁹⁾가 내려졌다. 학생 120명의 class project로서 명확하고, 적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정학의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많은 문헌조사, 분석, 토의 및 비판을 하여 3개의 정의가 나왔으며 이를 가정학의 새로운 방향 및 image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제를 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이 (1) 현존하는 가정학의 정의는 모호하고 (2) 직업적인 home economist와 human

service professional과의 차이를 모르며, (3) 자신들을 home economist라기 보다는 전공에 따른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내린 가정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학은 과거, 현재의 견지에서 미래에 중점을 둔 인간의 전생애를 통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관한 하나의 통합(synergistic)된 학문이다.

(2) 가정학은 보다 자신에게 보답하는 충족한 삶을 가진 사회와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개인의 인간을 돕고 또 이끌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준비하는 학문의 한 분야이다.

(3) 가정학도는 가정학의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관한 하나의 전문화된 영역에 전문

적인 의견을 가진 직업인이다.

가정학의 전반적인 목표는 각 직업인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 분야에 초점을 두는 말로서 자기 설명되고 해석된다. 이 정의는 가정학이 통합된 인간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전생애에 관한 학문이며, 가정 대신에 개인(individual)을 강조한 점이 전통에서의 근본적인 이차이다. 즉 개인의 욕구충족이 가정 및 집단안에서의 만족에 선행조건이며 개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든 똑같이 중요하므로 결혼 이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봉사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4. 가정학 교육대상 확장

미래의 가정학²⁾에서 기술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주장할 가운데 특히 주의를 끈것은 가정학 교육대상 확장에 관한 제안이다. 즉, 좀 더 많은 가정학 교육이 초등, 중등, 성인교육에서 대학에서의 비전공학생에게, 그리고 법률가, 의사, 사회사업가, 국민학교 교사의 직업준비 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좀더 많은 가정대학이 남녀공학의 교육 program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가정학의 문제점

가정학이 미래에도 대학교육의 학문분야로서 계속 존속하려면 이를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다음의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1973년³⁾, 1975년⁴⁾, 1976년⁵⁾에 게재된 서술에서 나타나 있다.

1. 가정학의 전문화

현재 가정학을 보는 관점이 3개의 본질적인 방향, 즉, (1) 하나의 분야 (2) 하나의 통합된 분야 그리고 (3) 하나의 전문적인 집합체등이 있다. 초창기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였고, 그 후계 전공은 달라도 누구나가 가정학의 핵심과목은 이수하였으며, 최근에 공통필수과목이 없어진 전문화된 영역의 집합(collection of special-

ities)이라는 것이다. 70년대의 가정학의 행정단위는 이질적인 전문화된 영역들의 엉성한 연결에 지나지 않으며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치적 세력이 큰 타분야의 행정가들에게 침범 또는 흡수될 것으로 보였다. 예로서, 아동발달의 프로그램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으로, 실내장식이 예술 또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가족관계를 사회학이나 심리학으로 소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독특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은 "synthesis" 즉, 가정학을 묶어 주는데 있다는 것이다.

2. 전문적 직업교육

역사적으로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가정학이 여자를 위한 "오직하나"의 유일한 분야로서 전문적 지위 및 훌륭한 주부를 위한 최상의 교육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50년대에는 여자에게 직업의 문이 넓어져 타분야의 대학 입학생수의 증가 추세와는 반대로 가정학 지원자수의 감소는 위협을 주어 대폭적인 교과목 변경으로 전문적인 직업인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오고 있다.

가정학이 대학교육의 거대한 변동 가운데서 경제적, 행정적, 개념적 위기에서 존속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전문적 직업성 및 가정학도의 전문직에서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3. 교수진 및 연구활동

능력있는 교수의 부족과 연구활동의 부진은 큰 문제의 하나이며 교수진의 질적 양적 부족은 각분야의 연구활동 상황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수부족은 70년대에 이르러서도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학회지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몇개의 특정 기관 및 특정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가정학 분야의 연구활동이 저조한 이유로서 (1) 광범위한 전공분야 (2)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강조 (3) 제한된 연구비 (4) 대학당국의 연구에 대한 무관심 (5)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발표의 강조 부족 및 (6) 가정학이 적용학문(applied field)이라는 점등을 들고있다.

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는 더 많은 doctoral program, 본질적인 연구비 확보 및 연구에 대한 높은 인식 등이 필요하다. 학위과정 program의 다양화를 위하여 Interstate Doctoral Program¹⁰⁾ 및 Interdisciplinary Doctoral Program¹¹⁾ 등이 1976년에 소개되고 있다.

4. 성역할의 한계

어린이의 양육, 가정안의 일을 여성의 일이라고 규정짓는 대신에 이러한 일들은 성에 관계없이 남자 또는 여자가 다같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personal role)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전형적 성역할 강화를 중지하고 인간 또는 인간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명칭의 변경

몇개의 대학교에서 대담하게도 납득하기 어렵게 가정학이라는 명칭을 포기함으로써 가정학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시점에 도움보다는 혼란을 가지고 왔다. 물론 혼란은 변화에 수반되는 것이며 오직 새로운 방법이 익혀질 후에야만 가라앉는 것이다. Human ecology 로 명칭을 바꾼 Michigan 주립대학교의 설명서는 가정학의 정의와 다를 바 없다.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대학은 변경전보다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가? 즉, 더 많은 연구비를 받으며,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더 자발적으로 타분야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또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결과를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Home Economics"라는 호칭은 중등교육 및 중등교사 교육에서만 사용하라는 제안도 있으나 가정학의 통합을 이루려면 명칭의 혼란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가들의 포괄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IV. 결 어

가정학의 방향을 살펴보면 있어 방향과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나 실제로는 연결된 것이며 중복 또는 애매하게 분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가정학이 그 본질을 재검토하고 변

화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독특한 학문분야로서 새로운 방향모색에 관심이 쏠렸던 시기는 1970년대의 전반이었고, 그 이후는 주로 설정된 방향으로 활발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학회지의 표지에 나타난 main issue(한개만 제시되었음)를 1975년~1979년의 그 내용 및 빈도로서 살펴보면, 노약자들(the poor, aged, handicapped children, displaced homemaker)의 문제 및 봉사 5, 교육 3, 소비자 3, energy 2, community 1, 직업 1, 가정학 1 및 기타 영역이었으며 이는 가정학이 그때 그때 사회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채택하고 이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보다 풍족된 삶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내용에 있어 인용문헌 선택에서의 필자의 주관 이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문화권이 다른 그들의 당면하였던 문제들과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는 상통하는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미비한 본 조사가 우리나라 가정학의 기초를 굳히고 변화하는 여건하의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접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Lee, J.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A Delphi Study." *Journal of Home Economics*, Oct., 1973.
- 2) "The Eleventh Lake Placid Conference." *J.H.E.*, Jan., 1974.
- 3) "Home Economics-New Direction II." *J.H.E.*, May, 1975.
- 4) "Bubolz, M., Eicher, J. and Sontag, M. "The Human Ecosystem: A Model." *J.H.E.*, Spring, 1979.
- 5) Wadsworth, K. and Keasr, A. "Home Economics as Students define It." *J.H.E.*, March, 1976,
- 6) Spitze, H. "Home Economics in the Future." *J.H.E.*, Sept., 1976.
- 7) Marshall, W. "Issue Affecting the Future

-
- of Home Economics." *J.H.E.*, Sept., 1973.
- 8) Montgomery, J. and Ritchey, S. "Home Economics Research: Are We Doing All We Can?" *J.H.E.*, Jan., 1975.
- 9) Bonde, R.L. "A Time of Growth, A Time of Decisions." *J.H.E.*, Jan., 1976.
- 10) Snow, P. "An Interstate Doctoral Program in Home Economics." *J.H.E.*, Nov., 1976.
- 11) Perry, M. and Odland L. "An Interdisciplinary Doctoral Program in Home Economics." *J.H.E.*, Nov., 1976.